

“전 세계 상장 인프라 기업에 투자” 하나UBS 글로벌 인프라 증권



지난 2년간 이어온 시장 상승 추세가 최근에는 등락이 심한 변동성 장 세로 이어지면서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변동성 장세에 안정적 배당 수익을 제공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하나UBS 글로벌 인프라 증권’ 펀드를 추천했다. 연초 이후 대부분 섹터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원자재 또는 원유 수출국 관련 투자 성과만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현대차증권 측은 설명했다. 투자 대상은 디지털 또는 운송,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하다. 사회 기반



시설로서 경기 변화에 크게 상관없이 수요가 존재하며 초기 자본 및 인허가 등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물가 상승과 연동된 장기 계약 기반으로 위험회피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최근 약 10년간 인프라 자산 배당수익 추이를 살펴보면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변동성 또한 낮았다. 또 물가 상승 환경에서 전 세계 주식과 채권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향후 디지털 산업이 성장해 디지털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다”며 “전통적 에너지 생산 인프라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프라 체계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 구조적 변화로 인한 헬스케어 인프라, 폐기물 재생 산업 등 환경인프라 등도 글로벌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 상품은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위탁 운용하며 인프라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철저한 분석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60여 개 종목에 투자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사회기술혁신에 투자하며, 비탐업(상향식) 방식으로 접근한다. 종목별로는 대표적인 부동산투자신탁 기업인 아메리칸타워를 비롯해 프랑스 유료 도로 기업인 빈치, 캐나다 원유 수송업체 엔브리지에 투자한다. ▼